

■ 모치카와 찬찬 유적지 - 페루의 툼베스 여행(4)

이 호 인

트루히요

아침이 되어 트루히요(Trujillo)에 도착했다. 카하마르카에서 그랬듯이, 먼저 중앙광장으로 가서 근처 레스토랑에서 아침을 해결하고 투어회사를 찾았다. 여담으로 페루에서는 각 도시마다 다양한 유적이 있고, 그런 이유로 중앙광장 근처에 몇몇 투어회사가 위치해있다. 회사마다 투어 프로그램이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가격도 다르기 때문에, 몇 곳을 둘러본 후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나 역시 중앙광장 근처의 모든 투어회사는 다 둘러본 후 결정했다. 어쨌든 그렇게 투어회사와 투어 프로그램을 결정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투어가 시작되었다.

내가 선택한 투어 프로그램은 모치카(Mochica 또는 Moche) 유적과 치무(Chimu) 왕국의 찬찬(ChanChan) 유적을 둘러보고 마지막으로 트루히요의 유명한 해변인 우안차코(Huanchaco)해변을 둘러보고 돌아오는 프로그램이었다. 이 중에서 가장 관심이 있던 것은 모치카 유적이었다. 사실 리마의 ‘라파엘 라르코 에레라 고고학박물관’에서 모치카 관련 유물을 본 적이 있었다. 그곳에는 특이하게 ‘에로틱 박물관’이라는 것이 따로 있었는데, 거기에 있던 흥미롭고 낯 뜨거운 토기들은 대부분 모치카 것이었다. 남녀의 성기와 성교의 모습을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묘사해서 정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는데, 이제 내가 그 문화의 중심지에 오게



리마의 라파엘 라르코 에레라 고고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모치카 토기
된 것이다. 어떤 문화에 관심과 호기심을 가지게 된 동기가 다소
영똥하긴 했지만 어쨌든 굉장히 알고 싶은 문화였다.

투어팀은 먼저 모치카 유적이 있는 곳으로 향했다. 모치카 문
화는 BC 200~AD 900년 페루 북부 해안에서 번성한 고대문화로
모체 계곡과 치카마 계곡을 중심으로 북부해안 일대에 퍼져있어
서 모체 문화라고도 부른다. 모치카 문화는 원래 토기가 매우 유
명하다. 앞서 예로 들었던 에로틱 토기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토
기들이 매우 사실적으로 당시의 생활상을 묘사하고 있어서 대단
한 가치가 있다. 물론 토기에 색을 입히는 방식 등, 예술적 솜씨
도 뛰어났다. 하지만 이곳 트루히요에서 보고자 하는 것은 유물
이 아니고, 모치카 문명의 중심지에 형성되어 있는 유적이다. 모
치카 문화의 유적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태양의 우아카'(Huaca
del Sol)와 '달의 우아카'(Huaca del Luna)라는 두 개의 신전이다.

태양의 우아카는 남아메리카에서 만들어진 것 중 가장 큰 흙벽돌 건물이었다고 한다. 높이는 41m이며 기초공사가 이루어진 지역의 넓이는 거의 3km²나 된다. 하지만 지금은 약 1/3정도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훼손되었으나 남아있는 유적을 통해 과거의 웅장했던 신전의 모습을 가늠해볼 수는 있었다. 페루 남부의 경우, 예를 들어 잉카 문화의 중심지인 쿠스코 유적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돌



모치카의 '태양의 우아카'와 주거지

을 이용하여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아직도 원형이 잘 보존된 유적이 상당수 있지만, 이곳의 경우 흙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비바람에 씻기고, 스페인 침략자들의 도굴까지 더해져 그 형태가 온전히 보존되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인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복원작업이 한창이었다.



모치카의 '달의 우아카' 내부 벽화

구체적으로 유적의 안으로 들어가서 다양한 문양으로 조각되고 그려진 벽면과 건물 내 구조 등을 살펴보았다. 달의 우아카 안에는 다채로운 색과 모양으로 장식된 벽면이 눈에 띄었는데, 역시 훼손된 부분이 많고 계속해서 복원작업 중이었다. 원래 태양의 우아카는 중요한 사람들의 무덤과 행정 중심지 역할을 했던 곳으로 생각되는 반면에 달의 우아카는 제사를 지내는 신전이였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태양의 우아카와 달리 달의 우아카는 화려하게 장식된 벽면이 많았고, 양각 문양은 색깔 사용이나 구성, 디자인이 뛰어나서 이들이 매우 높은 예술적 안목을 가졌음을 알 수 있게 해 주었다. 그만큼 달의 우아카는 스페인 침략자들의 도굴대상으로 매우 매력적이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멋진 벽면과 과거의 웅장한 신전을 가늠해 볼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지만, 너무 많이 훼손되어 있고, 복원공사가 계속 진행



치무 왕국의 찬찬 유적에서 보이는 격자문양으로 장식된 담

중이어서 그런지, 뭔가 과거의 영광 그 자체를 제대로 느낄 수는 없었다. 계속 복원 공사가 진행되어 왔다는 이야기는,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유적의 모습이 그 당시 사람들의 손길 그대로의 모습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서 유적을 바라보는 내 집중력을 흐트러 놓았고, 가뜰이나 흙벽돌로 지어졌던 건물이라 반 이상이나 훼손되어 있었는데, 그나마 아직까지 남아있는 부분들 중에서도 긴 세월 속에 다소 볼 품 없어진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유적 전체를 온전히 느낄 수 없었다. 어쨌든 모치카 문화의 유적을 다 둘러본 후 바로 레스토랑으로 가서 점심을 먹었다. 그리고 치무 왕국의 수도였던 찬찬 유적으로 향했다. 찬찬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곳이다. 그만큼 역사적으로 가치가 크고 훼손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큰 곳이다. 치무 왕국은 약 1300년부터 1440년 잉카제국에 정복당하기 전까지 페루 북부지방에서 번성한 왕국으로, 당시 찬찬은 아메리카 대륙 역



찬찬 유적의 물고기 모양 조각



바다의 여신 시를 모시던 곳에 새겨놓은 용의 우아카

사상 가장 큰 도시였다고 한다. 지금은 흙벽돌로 건설된 도시 중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로도 알려져 있다. 물론 흙으로 형성된 도시인만큼 모치카 문화와 마찬가지로 훼손이 많이 되어있고, 현재도 특히 엘니뇨현상으로 인해 훼손이 점차 심해지고 있어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는 유적지라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적지 내에는 아직 튼튼하게 서 있는 담들이 많아서 당시의 웅장함을 느낄 수 있게 해 주었다. 이곳 치무 왕국의 유적도 모치카 문화의 유적지와 마찬가지로 벽면에 조각된 그림이 벽의 형태 등이 가장 인상적이었는데, 특히 주로 물고기가 문양으로 조각된 벽면이 인상적이었다. 아무래도 해안도시인 트루히요에 형성된 문화인만큼 물고기가 삶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다.

실제로 치무 왕국은 다른 해안지방의 사람들처럼 달의 여신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바다의 여신 시(Si)를 섬겼다고 한다. 그만큼 바다와 물고기가 그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였음은 틀림없어 보인다. 바다의 여신 시를 모시던 곳에는 ‘용의 우아카’라고 부르는 벽면이 있었는데, 용의 모양과 그 위에 무지개 같아 보이는 문양이 눈에 띄었다. 치무를 대표하는 예술품으로는 그들의 시조인 나임랍(Naymlap) 모습이 있는 반달형 칼 투미(Tumi)가 있다. 사실 나는 이 투미 모양의 팬던트로 된 목걸이를 쿠스코에 갔을 때 기념품으로 샀는데, 그때는 잉카문명만의 예술품으로 알고 있었다. 그런데 사실 이 투미의 원조는 치무 왕국에 복속되기 이전에 람바예케 골짜기에서 꽃피운 시칸(Sican) 문화의 금으로 만든 반달형 칼이었던 것이다.

모치카 유적과 치무 유적을 둘러보고 솔직히 느낀 점은 어떠한 역사적인 유적이거나 유물을 보고 무언가를 제대로 느껴보기 위해서는 공부나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예전에 잉카문명의



나임랍 모습의 반달형 칼 투미

중심지인 쿠스코에 갔을 때는 잉카 문명과 유적, 유물 등에 대하여 많은 것을 공부했다. 그래서인지 마추픽추뿐만 아니고 그 외에 다른 유적지나 유물을 볼 때에도 더욱 세밀한 부분까지 살펴 보며 차분히 음미할 수 있었고, 문헌으로만 접하던 문명을 내 눈으로 실제로 본다는 감동도 훨씬 컸다. 하지만 이번에는 잉카 이전 시대에 대하여 그다지 많은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 유적에 대해 사실 큰 인상을 받지는 못했다. 어떻게 보면 예술이라는 것은 기반지식 없이 자기만의 느낌 그대로 감상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게 감상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지만, 지난 문화의 유적이거나 유물의 경우에는 그 시대 사람들의 생각과 문화, 그 시대에 그러한 유적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이나 목적 등에 대해 어느 정도 공부를 한 후에 보는 것이 아무 지식 없이 보는 것보다 더욱 폭넓게 유적과 유물을 감상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유적을 모두 살펴본 후 우안차코 해변으로 향했다. 트루히요에서도 유명한 해변이고, 페루 내에서도 나름 유명한 해변이라 해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갔는데,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이곳에 오기 전 틴베스의 폰타살 해변이 우안차코 해변보다 몇 배는 더 아름다웠고, 물도 훨씬 더 깨끗하고 주위 경관도 더욱 아름답게 조성되어 있었다. 우안차코 해변은 해수욕을 위한 해변과 어선이 있는 곳, 낚시하는 곳이 구분도 안 되어 있어서 한쪽에서는 수영하고 또 다른 쪽에서는 어선이 머물러 있거나, 사람들이 낚시를 하고 있었다. 그런 만큼 해수욕을 하기에는 물이 다소 더러웠고, 거품이 똥똥 떠다니기도 했고, 하얗고 부드러운 백사장은 커녕 해변의 반은 돌로 뒤덮여 있었으며, 해변으로 길게 뻗어 있는 길을 가보기 위해서는 통행료까지 지불해야 했다. 혹시 누군가 몇몇 관광 안내책자나 인터넷으로 정보를 얻어 우안차코로 가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바로 말리고 싶은 심정이었다. 다만 한 가지 인상 깊었던 것은 티티카카호수가 있는 페루 남부의 푸노에서 볼 수 있었던 토토라라는 갈대과의 식물로 만든 배가 이곳 트루히요에도 있었다는 점이였다. 오히려 토토라로 만든 배는 푸노보다 트루히요의 상징으로 유명한 듯 했다.□